

파라과이 농업현황 및 시사점 *

이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일반연왕

1.1. 일반 및 정치외교 연왕

파라과이(Republic of Paraguay)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면적은 30만 6,752km²로 한반도의 약 1.8배 규모이며, 인구는 2013년 현재 67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2014). 인구의 95%는 메스티조이며 기타 유럽계, 동양계, 아랍계 등이 5%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종교로는 가톨릭(90%), 기독교(6%), 기타(4%) 등이 있다.

파라과이는 내륙국가로 실질적으로 수산자원은 없으나, 대륙성 아열대에서 온대성 기후를 포함하는 적절한 기후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강수량은 연 1,700mm로 풍부한 편이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

파라과이의 수도는 아순시온(Asunción)으로 지방행정은 17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2013년 8월, 중도우파 성향을 가진 Horacio Carters가 8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

* (yilee401@krei.re.kr 02-3299-4033).

그림 1 파라과이 지도



자료: 세계지명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9316&cid=43965&categoryId=43965>, 접속: 2014년 12월 29일).

다. 현재 파라과이는 정부의 부패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¹⁾ 평가결과 182개국 중 154위를 차지한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파라과이 정부는 부패 근절을 국정의 제 1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빈곤 탈피, 치안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친 서방 반공국가였으나, 다원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²⁾ 국가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을 중

1)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Southern Common Market

심으로 볼리비아,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주기구(OAS)³⁾, 리오그롭⁴⁾ 등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48개국, 아프리카 27개국, 아시아 36개국 등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협정으로는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75), 무역협정(82), 투자보장협정(92), 무상원조협정(11) 등이 체결되었다.

1.2. 경제사의 연왕

파라과이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57.7%), 농업(19.2%), 제조업(23.1%)이며, 주요 수출품은 코어, 면화, 목재, 육류, 가죽 등이다. 파라과이는 2013년에 13.6%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총생산은 258억 달러, 1인당 GDP는 4,338 달러에 달하였

표 1 파라과이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207	241	261	258	327
	1인당 GDP	달러	3,214	3,686	3,904	4,338	4,735
	경제성장률	%	13.1	4.3	-1.2	13.6	4.6
	재정수지/GDP	%	1.4	0.5	-1.2	-1.5	-1.3
	소비자물가상승률	%	4.7	8.3	3.7	3.2	4.6
대외 거래	환율	G ⁵⁾	4,735	4,191	4,425	4,315	4,498
	경상수지	백만 달러	-66	289	116	1,317	856
	상품수지	백만 달러	822	836	848	2,280	1,996
	수출	백만 달러	10,367	12,520	11,904	14,703	14,968
	수입	백만 달러	9,945	11,685	11,056	12,423	12,972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33	-89	-90	-183	-212
	자본수지	백만 달러	208	1	448	...	...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4,167	4,983	4,994	6,336	6,566
외채 현황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5,076	6,011	6,749	7,568	8,466
	단기외채	백만 달러	1,311	2,136	2,114	...	...
	총외채잔액/GDP	%	26.8	28.3	28.8	27.1	26.6
	외채상환액/총수출	%	6.2	5.5	6.6	6.2	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4).

3)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4) 라틴아메리카 지역 최대 정치 협의체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협조 강화, 지역 분쟁 해결, 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 추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사회, 과학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5) 화폐단위 과라니(Guaraní).

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10년의 빈곤율은 1997년 대비 18.8%에서 19.4%로 0.6%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 10.3%보다 3배 이상 높은 32.4%로 도농 간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 고용 비중이 약 27%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빈곤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 분야에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빈곤의 주요 원인은 파라과이가 1차 상품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1차 상품 수출이 소수의 외국계 기업농과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제주권 및 토지주권이 상실되었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줄어 생산 다변화 및 기계화 등에 실패하였고, 기술력으로 인한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격차로 소농들의 생계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도시외곽의 주거,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에는 도시 외곽지역의 빈곤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라과이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1>과 같다.

1.3. ODA 연왕

국제사회의 파라과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억 2,100만 달러 규모(Net ODA)이었으며, 2011년에는 9,400만 달러, 2012년에는 1억 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양자 지원의 경우 2010년 64%, 2011년 58%, 2012년 51%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총소득 중 차지하는 ODA 비중은 2010년 0.6%, 2011년과 2012년에는 모두 0.4%를 보이며 1%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과 2012년도의 주요 10대 공여기

표 2 파라과이 10대 공여기관의 ODA 자원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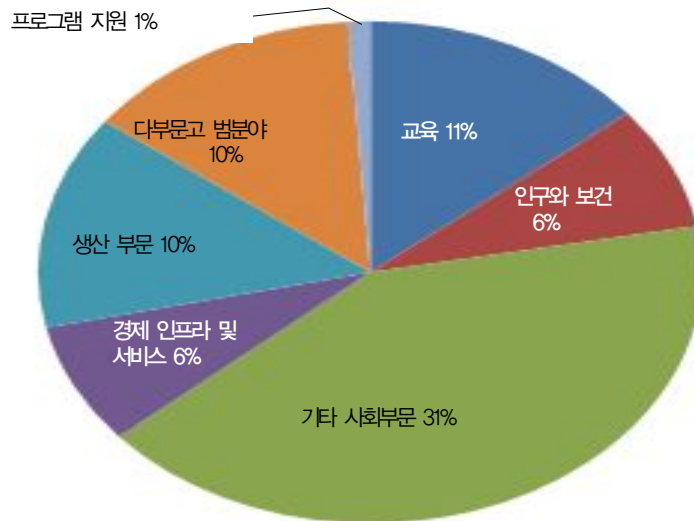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순위	공여기관	지원규모
1	IDB ⑥)	39	6	독일	10
2	미국	30	7	한국	7
3	일본	24	8	Global Fund	6
4	EU기관	23	9	IFAD⑦)	4
5	스페인	13	10	ORFID⑧)	2

자료: OECD/DAC 통계⑨)

관의 ODA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야별로는 교육(11%), 생산부문(10%), 다부문과 범분야 이슈(10%), 인구와 보건(6%),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6%) 등이 있으며 기타 사회부문이 3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분야별 ODA 지원추이(2011-2012)



자료: OECD/DAC 통계 재구성.

이러한 분야에서의 지원은 거버넌스 및 반부패 정책 중심의 제도적인 역량강화,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인 역량강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적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역량강화 목표에 소농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업 및 농촌 분야의 개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라과이의 주요 공여국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대 파라과이 무상원조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파라과이를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무상원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對)파라과이 무상원조 규모는 2006년 188만 달러에서 2012년 577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중점협력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ICT 마스터 플랜 및 교통 분야 등이다. 사업 형태는 프로젝트, 물자지원,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및 자원봉사단 파견, NGO 지원, 긴급구호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

2. 농업연망

2.1. 농업여건

2.1.1. 농업인구

파라과이는 농촌인구와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농업 국가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약 27%가 농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으며(2011년 기준), GDP에서 농업부문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인구는 2012년 기준 전체 인구 668만 명 중 농촌인구는 194만 명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파라과이 농촌인구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1997	2002	2007	2012
전체 인구	5,015	5,565	6,119	6,687
농촌 인구	1,848	1,880	1,907	1,948

파라과이의 농업 고용 비중은 2007년, 2009년 29.5%, 2011년 26.4%를 차지하며 약 30% 정도이다.

2.1.2. 농지 및 농가 구조

파라과이의 국토면적 대비 농업면적의 비중은 약 53%로 210만 km²이며, 농업면적 중 경작면적은 390만ha로 농업 면적의 18.6%를 차지한다. 1인당 경지 면적은 0.6ha정도이다. 산림 면적은 약 44%로 174만km²이고 영년작물 재배 비중은 22.7%이다(2011년 세계은행 기준).

파라과이의 농가는 경지면적에 따라 대농, 중농, 중소농, 소농, 빈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대농은 10%, 중농 16%, 중소농 9%, 소농 53%, 빈농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소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형태는 가족농업, 소고기 생산 중심의 축산업, 외국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기계화 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농 농가 수는 약 35만호이고, 인구는 25만 5,000명으로 중앙 오리엔탈(Oriental)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축산 농가는 약 1만 2천 호, 농지면적 2,700ha(주로 초지, 자연초지 및 침식풍화 산림이 20~25%)를 차지하며, 비교적 발전된 축산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 기계화농은 발전된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브라질자본이

투자된 경우가 많다. 기계화농을 통해 재배되는 주요 작물은 대두이며, 그 외 옥수수, 밀, 해바라기가 재배된다. 기계화농은 중앙 오리엔탈(Oriental) 지역, 남동부 및 동부지역 파라나 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한국농어촌공사 2013).

2.2. 농업생산성

파라과이의 주요 농산물은 대두,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밀, 소고기 등이다<표 4 참조>. 파라과이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작물은 대두로 2012년 430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 6위의 생산국이 되었고, 2011년에는 501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4위의 대두 수출국이 되었다(FAO 2014). 대두의 재배면적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296만ha, 2013년 300만ha)하였다.

표 4 파라과이 농업생산량(2012년도)

구분	내용	생산량(MT)	생산액(천 달러)
1	대두	4,344,960	2,184,444
2	사탕수수(sugarcane)	4,186,000	130,153
3	옥수수	3,079,525	291,412
4	카사바	1,685,600	141,652
5	밀	1,560,600	174,349
6	우유	515,000	160,711
7	쌀	395,998	104,772
8	쇠고기	354,854	958,595
9	오렌지	235,000	45,416
10	돼지고기	167,892	258,090
11	달걀	130,000	107,821
12	수수(sorghum)	124,625	1138
13	유채씨(rapeseed)	110,500	33,316
14	수박	110,000	12,531
15	마테	85,490	11,190
16	해바라기씨	78,950	34,257
17	바나나	65,000	16,450
18	파인애플	62,000	17,673
19	유동나무 열매(Tung nuts)	52,285	7437
20	토마토	46,500	17,185

자료: FAO STAT(2012).

2012년도 파라과이의 농업생산량을 살펴보면 대두,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축산부문에서는 쇠고기가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수출 순위를 살펴보면, 대두를 이어 쇠고기가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파라과이의 주요 농산물 수출 순위(2011년도)

단위: 천 달러

구분	내용	수출액	세계 수출순위
1	대두	1,600,000	4위
2	정육 쇠고기	542,606	-
3	대두박	350,000	-
4	옥수수	296,537	12위
5	밀	203,384	-
6	대두유	200,000	-
7	참깨	46,500	-
8	쇠고기	35,554	11위
9	해바라기유	22,000	-

자료: FAO STAT(2011).

파라과이의 축산업은 쇠고기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파라과이는 쇠고기 수출에서 2011년 기준으로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11위,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과 2012년 구제역 발병으로 수출에 타격이 있었지만 최근 구제역 청정국 지위(백신사용국)를 회복하면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파라과이의 축산물(고기 및 부산물) 수출규모(2008-2012)

단위: 톤

연도	고기	가죽	기타 부산물	총액
2008	155,706	28,076	79,625	263,457
2009	163,231	36,430	84,161	283,822
2010	170,344	49,502	113,208	333,054
2011	142,521	38,141	85,916	266,578
2012	165,216	49,903	109,718	324,837

자료: MAG/SIGEST(2013).

3. 농업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3.1. 파라과이 국가개발전략

파라과이의 국가개발전략은 파라과이 비전 - 모든 파라과이 국민의 사회개발을 위한 공공정책(Propuesta de Política Pública para el Desarrollo Social, Paraguay para Todos y Todas 2010~2020, PPDS 2010-2020)과 경제·사회전략(Plan Estratégico Económico y Social 2008~2013, PEES 2008-2013) 등 상위계획과 그 외의 섹터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개발계획은 위의 상위계획과 새천년개발목표(MDGs)¹⁰⁾의 달성 정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파라과이비전(PPDS 2010-2020) 하에 경제·사회전략(PEES 2008-2013)과 4개의 전략 축, 28개의 국가 목표, 131개의 우선 정책 및 45개의 범분야 정책, 11개의 핵심프로그램과 기관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과이 국가개발전략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의 구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자료 재정리.

10)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은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 실현, 4. 아동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1.1. 파라과이 비전(PPDS 2010~2020)

파라과이 비전 - 모든 파라과이 국민의 사회개발을 위한 공공정책(Propuesta de Política Pública para el Desarrollo Social, Paraguay para Todos y Todas 2010-2020, PPDS 2010-2020)은 4가지의 주요 목표 (① 모든 국민 삶의 질 개선, ② 소외계층의 빈곤 및 빈부격차 완화, ③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④ 제도적 역량과 사회투자 부문의 효율성 강화)를 설정하였다. 우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보건, 교육, 주거, 물, 위생, 신원증명, 식량안보 분야에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편화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소외계층의 빈곤 및 빈부격차 완화는 아동, 원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에 대한 접근성 강화, 토지 권리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빈곤 완화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부문은 가족농 지원 및 농업 개혁, 토지 분배,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역량과 사회투자 부문의 효율성 강화는 정부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3.1.2. 경제·사회전략(PEES 2008~2013)

경제·사회전략(Plan Estratégico Económico y Social 2008-2013, PEES 2008-2013)은 경제, 사회, 제도 및 환경을 포함하는 총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주요 전략축으로 ① 거버넌스 향상과 부패 척결, ② 빈곤 감소, ③ 형평성 있는 성장을 설정하였다. 거버넌스 향상과 반부패 강화 정책에서는 반부패 및 투명성 강화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를 위해 직업창출과 빈곤 감소, 소농 활성화, 가족농에 대한 지원 확대, 토지 문제 해결, 중등교육의 질 개선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 형평성 있는 성장 부문에서는 금융 및 재정위기 대응, 직업 창출과 소득분배, 환경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3.2.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

3.2.1. 농업·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분야의 주요 전략

파라과이는 농업·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분야의 주요 전략으로 빈곤감소 전략(Estrategía Nacional de Lucha Contra la Pobreza)과 농가의 식량주권, 원주민경제, 영양개선,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계획(Plan Nacional de Soberanía Alimentaria 2009-2013) 등을 수립하였다. 빈곤감소 전략의 주요 목표는 조건부 현금지원을 통해 극빈계층을 위한 사

회안전망(보건·의료, 교육, 영양, 가정, 거주환경)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계획은 식량안전, 식량주권, 농촌개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2.2. 농업전략 프레임워크 기본가이드라인(2014~2018)

최근 파라과이 농축산부와 농업·농촌개발 통합관리시스템(SIGEST)에 의해 수립된 농업전략 프레임워크 기본가이드라인 2014/2018(Marco Estratégico Agrario Directrices Básicas 2014/2018)은 농업·농촌 분야 발전을 통해 파라과이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농업 경쟁력 향상, ② 가축농 발전과 식량안보의 개선, ③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과 환경 서비스 제공, ④ 축산업 및 축산농 발전, ⑤ 기후 변동 및 변화와 연계된 위험 관리, ⑥ 사회 통합 및 농촌 기업가정신 및 고용 발전을 포함하는 여섯 개의 전략 축(axis)과 각 축 별 목표, 중심 프로그램,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다섯 개의 축은 농업발전의 실질적 측면이며, 여섯 번째 축은 고용과 농촌 기업가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농촌행위자들의 통합을 지향하는 등 다층적인 측면을 나타낸다(MAG/SIGEST 2013).

4. 농업분야 국가협력전략(CPS)¹¹⁾ 및 시사점

4.1.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파라과이 농업분야 국가협력전략

4.1.1. 미주개발기구(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IDB는 파라과이의 경제·사회전략(Plan Estratégico Económico y Social 2008-2013, PEES 2008-2013) 주기에 맞추어 2009-2013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농업, 교통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국가전략의 주요 지원 분야와 일치시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 분야를 살펴보자면 경제·사회전략(PEES 2008-2013)의 주요 실행계획인 가축농에 대한 지원 확대와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축농에 관한 사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 소유권 공식화를 위한 기술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1)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4.1.2.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 또한 농업 분야에서의 주요 지원 대상을 소농으로 설정하였다. 대농과 중농에 비하여 소농은 규모가 작은 생산자이며, 의료, 교육 등 기초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경제·사회전략(PEES 2008-2013)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농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소농 및 취약계층의 빈곤 및 토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취약 계층의 기초사회서비스 및 토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 지표로 지원 서비스 및 프로젝트의 수혜 커뮤니티 수, 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원주민 수혜자 수 등을 설정하였다.

4.1.3. 기타 공여국

일본의 경우 농업 토지개발 분야에서 정책 자문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대만은 농산물의 상업성 특히 원예농업의 생산성 및 상업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를 위해 소농에 대한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제공 및 기술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4.2. 우리나라의 대(對)파라과이 농업분야 국가협력전략

우리나라의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은 보건, 농업, 교통 분야에서 중점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농업 연구기관과 농가의 기술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농업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과 농작물 다변화 및 종자개량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국의 농업관련 교육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농민에게 기계화, 영농기술 보급, 품종개량,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술적 역량강화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단계의 발전을 통해 소농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3. 시사점 및 제언

파라과이의 농업은 전체 경제의 약 20%, 고용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농 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이 심각하여 빈곤 측면에서 보면 농촌과 농업 분야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파라과이의 농가는 대농, 중농, 중소농, 소농, 빈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농이 53%, 빈농이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소농 혹은 빈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농 간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농촌지역에서의 빈곤율이 도시 지역의 빈곤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파라과이의 모든 국가개발전략이 포함하고 있는 빈곤 감축을 위해 농촌 및 농업 분야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공여국들의 대파라과이 농업분야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ODA 사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대파라과이 농업분야 ODA 추진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통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대파라과이 농업분야 국가협력전략 중 하나로 실행되고 있는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교통 및 시설 인프라의 구축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확 후 안전하고 신선하게 생산품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 인프라와 저장 및 가공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교통, 운송 및 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들은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진 농산품 혹은 가공 및 제조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이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농민들을 위한 기계화, 영농기술 보급 등의 교육을 직업·교육 훈련 기관(TVET)¹²⁾과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 훈련 기관을 주요 거점으로 농업 기술 교육기관들을 연결한다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농민들 간의 네트워크 혹은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통해 농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환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경우 수평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농민들이 다양하고 다각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 가치사슬체계에 따라 농민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기에 용이해지며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파라과이의 농산물 생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산업의 경우, 큰 규모의 농가는 기업

12)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농의 경우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며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소농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신의 수요에 맞는 생산주체를 연계한다면 생산과 판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라과이 농업분야 개발에 있어 주 대상은 소농이 되어야 한다. 소농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소농 자신들이 스스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농촌의 빈곤 감소를 위한 방법이라 판단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3.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 2013-2015.
- 한국국제협력단. 2012. CPS 성과관리를 위한 국별 평가방안 연구: 시범국-파라과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농어촌공사. 2013. 파라과이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2014 세계국가편람.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_____. 2014. 국별리포트(파라과이).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MAG. 2010. Programa de Fomento de la Produccion de Alimentos por la Agricultura Familiar 2010-2020. Asunció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 MAG/SIGEST. 2013. Marco Estrategico Agrario Directrices Basicas 2014/2018 (Agricultural Strategic Framework Basic Guidelines 2014/2018). Asunc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 Maykell Leite Da Costa, Andréa Cristina Dörr and Jaquiline Carla Guse. 2011. *How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Soy Farmers in Paraguay*, Annals of the the University of Petroşani, Economics, 11(3), 2011, pp. 55-68
- Wadaman Science Co. and Kaihatsu Management Consulting. 2014. Project Formulation Survey for Adding Value to Products of Small-scale Farm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esame Processing Technology, Asunción. Republic of Paraguay.

참고사이트

-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인문지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9316&cid=43965&categoryId=43965>)
-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 (<http://pry.mofa.go.kr/korean/am/pry/policy/situation/index.jsp>)
- FAO STAT(faostat.fao.org)
- OECD-DAC STAT(<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PRY.jpg>)

